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여정부의 대분전찬

- 일 시 : 2004. 6. 1(화) 17:20-
- 장 소 : 롯데호텔

통일부장관
정 세 현

존경하는 재외동포 한인회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인 도포사회이 바저으 의체 애쓰시느 언리부드이 누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작년부터 「열린 통일포럼」이라는 것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그 일환으로 미주지역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열린 통일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작년은 북한 핵문제로 국제적인 우려가 컸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북한핵 관련 정책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하였습니다.

정부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노력과 병행하여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것만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700만 인구의 절반이상인 2,500만명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으며, 수출 의존도가 61%에 달하는 여건 속에서, 북한 핵문제로 남북관계가 중단되면 당장 우리 경제와 안보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상황과 고충을 직접 설명함으로써 우리 동포사회와 미국 조야 인사들의 이해를 돕는 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은 민족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는 점에서 동포사회의 여론 형성, 그리고 지지의 결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포사회의 여론은 국내 여론과 해외여론의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포사회의 여론을 주도해 나가시는 한인 회장단 여러분들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sales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이유도 여러분들께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한인회장 여러분,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또한 북한이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분단 반세기 동안에 일어난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 사회·문화적 이질화 현상을 감안할 때 당장의 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하다고 해도 현실적인 대안은 아닐 것입니다.

북한이 변화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부단한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동질성을 회복해 나갈 때만이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고 비로소 통일의 기반도 조성되는 것입니다.

지난 5-6년간 북한에 다가가는 대북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북한이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3년간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가격구조를 현실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의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경제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는 주요 도시에 종합시장을 개설하고 있으며, 배급제와 함께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을 허용함으로써 사적 경제활동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구 개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개방의 전진기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중국·동남아·유럽 등지에 시장경제 및 법제 연수단을 파견하여 선진 경제제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남북 경협과 특구의 법제를 담당하는 북한 인사들이 우리 기업체 임원들과 함께 중국의 상해, 소주공단, 심천 특구 등을 시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개방구들의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직접 눈으로 봄으로써 개방정책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북한도 이제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식 개혁·개방을 벤치마킹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개성공단 개발과 금강산 관광 특구 개발을 어떻게든 성공시켜 개방의 초석으로, 경제발전의 디딤돌로 삼고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23자 Washington Post의 "A Capitalist Sprout in N. Korea's Dust"라는 기사는 북한이 개성을 개방한 것에 대해 '가장 대담한 경제개혁 실험'(boldest attempt at economic reform)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5.13자 홍콩의 Far Eastern Economic Review는 북한 주재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북한의 개혁은 '되돌릴 수 없다'(no turning back)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경제 분야의 변화가 정치·군사 분야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를 보십시오. 중국은 경제문제 때문에 시작한 개혁·개방 과정에서 군대의 규모를 줄이고, 인민해방전쟁의 개념도 변화시켰습니다.

중국은 최근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가 나서서 사경제 활동을 고무하고 있고, 합법적인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본가들을 공산당에 입당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북한의 경제 분야에서 시작된 변화는 사회·문화 분야의 변화를 촉발하고 종국적으로 정치·군사 분야의 변화를 이끌어 내게 될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의 시행착오를 피해 가면서 선행 성공 사례를 신속히 소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인 회장 여러분,

만약에 햇볕정책이 없었다면, 그리고 평화변영정책이 없었다면 이러한 북한의 변화도, 남북관계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결국 화해협력 정책의 방향이 옳았었고, 참여정부가 이를 계승하여 평화변영정책으로 발전시킨 것도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에 33회의 남북대화를 했고, 13,877명이 남북을 왕래했습니다. 작년에는 38회에 걸친 남북회담을 106일 동안 하였습니다. 16,303명이 남북을 왕래하였습니다.

교역량도 6.42억불에서 7.24억불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7.24억불은 북한 대외무역액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우리가 매년 지원해주는 식량과 비료는 북한의 부족 식량의 반 이상을 메꿔주는 셈입니다.

최근 북한 용천재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많이 있었습시다만,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우리의 대북지원은 전체 국제사회 지원액의 6배가 넘습니다. 민족적 체모를 잃지 않게 되어 다행입니다.

교류협력 분야에서, 또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서 남북간 상호 의존도는 이처럼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간 끊어진 철길과 육로를 연결하는 사업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도는 연내 가능한 구간 내에서 시험운행을 하려하고 있으며, 도로는 연내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1단계 100만평 공사가 지난 4.23 착수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28,000평의 시범단지에 15개 정도의 기업체가 먼저 입주하여 생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주 장성급 군사회담이 개최되던 날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법」 하위규정의 일부를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금강산 관광 특구개발을 위한 여건이 강화되어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남북의 접촉면과 접촉공간을 더욱 넓힘으로써 남북이 화합하고 공존하게 되는 인프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협력 사업들은 비무장 지대를 넘나들면서 추진되기 때문에 남북 군대간 협력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 비무장 지대의 철조망과 지뢰를 걷어냈습니다. DMZ안에 동서로 '평화회랑'(peace corridor)이 조성된 것입니다.

군사직통전화도 개통되어 동서 공사현장에서 영관급 장교들이 매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 사업의 군사적 보장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000년 11월부터 20차례의 남북 군사 실무회담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군 당국자들도 군사 분야에서 원활한 협력이 있어야 경제 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군사 분야의 협력을 한 단계 끌어 올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문제까지 다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의 남북관계 발전도 군사 분야에서의 진전이 없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년 꽃게잡이철만 되면 남북간에 긴장이 고조되는 서해상에서의 우발적인 무력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군사 당국자간 협의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수석대표로 있는 장관급회담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여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합의를 이끌어 냈고, 지난주 금강산에서 제1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1차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는 도출하지 못하였지만,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교환하였고, 차기 회담 일자에 합의함으로써 정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6.3)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이 설악산에서 개최됩니다만, 군사 현안에 대한 실천적인 조치들에 합의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보 불안감없이 생활하는 데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지속가능한 평화'(Sustainable Peace)는 없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군사 당국자간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협력, 신뢰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인회장 여러분,

이제 한반도 주변정세는 새로운 변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안보 불안 요인이기는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관련국 들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핵문제는 북한이 핵관련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을 해소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계획을 포기하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최근 북-중 관계진전, 북-일 관계개선의 움직임은 결국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남북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한인회장 여러분,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이라크 차출문제로 우리의 안보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우리의 국방력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등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맹관계에서는 정서도 중요하지만, 국가이익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북관계가 일상화, 제도화되면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황의 발생을 방지해 나가고 있는 현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반 상황 속에서 이제 북한은 고립을 풀고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북한이 안심하고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통일문제는 남북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북간 교류협력도 국제적인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번영에 기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국제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남북협력」과 「국제협력」간에 균형감을 가지고 양자를 조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국제사회의 여론이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를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동포사회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동포사회의 지지와 협조는 거주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우호적인 국제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인회장 여러분들은 동포사회를 결집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께 거는 기대가 큼니다.

북한을 압박하기보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한반도의 평화('과정으로서의 평화'와 '결과로서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남북관계의 paradigm이 바뀌고 있고,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조국의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벤치마킹해 나간다면, 5~10년 내에 지금과는 크게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이고, 따라서 남북관계도 엄청나게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조국의 현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몰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친지와 자녀들에게 통일예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동안 뜻있는 일정을 보내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